



# 열린시장 열린군산

‘설’ 차례상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유난히 고되게 느껴지는 설 명절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대형마트 보다는 집 가까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 할인되는 **군산사랑상품권** 이용으로 명절 준비 가게 부담도 줄여보세요.  
풍요롭되, 안전을 유지하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2022  
제298호

01

발행일 2022.1.25.  
발행인 군산시청  
발행처 군산시청 공보담당관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T.063-454-2092

블로그 <http://blog.naver.com/gunsanp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gunsancity>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gunsancity>  
홈페이지 [www.gunsan.go.kr](http://www.gunsan.go.kr)

#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취득자(미성년자 제외)가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실 거주 목적으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3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취득자의 전년도 소득이 7천만원 이하(배우자 소득합산)
- 취득가액이 1.5억원이하 주택은 면제, 1.5억 초과 3억원 이하는 50%감면

문의 세무과 454-2430

##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현행** 반려견의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

**변경** 반려견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  
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문의 농업축산과 454-5912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의무화

**현행** 최소 4종이상 선택적 분리배출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변경** 공동주택·단독주택 모두 재활용가능 자원 배출시 투명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별도 분리배출 시행  
·투명페트병 혼합배출시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자원순환과 454-3460

## 주소제도 국민참여 확대

**현행** 신축건물의 경우에만 소유자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가능  
임차인 요청시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가능

**변경** 30일 이상 정착 활동에 사용되는 인공구조물(비닐하우스, 암자, 축사 등)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도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임차인의 요청 없이 소유자의 부여 신청 가능

문의 토지정보과 454-3983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현행**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변경**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문의 건강관리과 460-3239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현행** 교통신호 통제에 따라 긴급차량 운행 중 정지

**변경** 교통신호 일시제어를 통한 긴급차량 진행방향 직진(직좌)신호부여

문의 교통행정과 454-7912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

**현행** 하이브리드 2021.12.31.일 까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021.12.31.일까지

**변경** 하이브리드 2022.12.31.일 까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024.12.31.일까지

문의 차량등록사업소 454-5792

##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

**현행** 군산시민이 원거리 섬(어청도) 방문 시 여객운임비 반값 지원 (1개항로)

**변경** 군산시민 뿐 아니라 타 시도민이 관내 섬 방문 시 여객운임비 반값 지원 (3개항로) \* 전산시스템 구축 후 시행 '22. 4월경

문의 수산진흥과 454-2893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현행** 스포츠강좌이용권 1인당 8만원, 연간 8개월 이상 지원

**변경** 스포츠강좌이용권 1인당 8만 5천원, 연간 10개월 이상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내 만 5세~18세, 만19~64세 장애인

문의 체육진흥과 454-3296

## 영아수당 <신설>

**영아수당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출생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 0개월~ 23개월까지(영아1인) / 월 300천원

문의 아동청소년과 454-3225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및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12만원 부과 (통학 차량의 경우 정해진 구역·시간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문의 교통행정과 454-3795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신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기본 적용  
- 기존 30% 이상 공제 대상은 현행 유지

문의 여성가족과 454-3214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신설>

- 추진배경 :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 주요내용 : 22. 1. 1.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문의 여성가족과 454-3253

##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설>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 재배 시 ha당 60만원 지원 <보조율 도비 30%, 시비 70%>

문의 농업축산과 454-2842~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시정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0% 할인-군산사랑상품권 판매개시!

농협·전북은행·새마을금고·신협 등 4개 금융기관 74개 지점에서 2022년 군산사랑상품권 판매가 시작됐다.

종전과 같이 10% 할인해 판매되고, 월 구매한도는 1인 50만원(통합 한도)이다.

이 중 종이상품권은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카드는 통합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다.

코로나19 위험 상황과 금융기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매월 첫 5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판매한다.

군산사랑상품권  
2022년 1월 3일  
"판매 개시"  
(종이·카드 총전 오전 9시 ~, 모바일구매 오전11시~)

- 월 구매한도 50만원 (종이·모바일·카드 통합한도)
  - 단, 종이는 10만원까지만 구매 가능
  - 모바일·카드는 통합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
  - 예시) 1. 종이10만원 + 모바일·카드 40만원
  - 2. 모바일 50만원 (종이는 50만원 구입불가)
- 10% 할인 판매
- 매월 첫 5일은 5부제 판매(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구분	월	화	수	목	금
출생년도 끝자리	1	2	3	4	5
	6	7	8	9	0

- 군산사랑카드는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가능
- 올바르고 건전한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통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합시다. (군산시 부정유통 상시 모니터링 운영)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소상공인지원과 454-2662

## 세금고민 해결! 마을세무사 상담 시작~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도와줄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과 청구액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제도인만큼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에 제한이 될 수 있다.

상담 가능한 마을세무사는 군산시청 홈페이지나 군산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감사담당관 454-4441

## 군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

내흥동 오션클래스 아파트 도서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이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 자치적 돌봄공동체 형성을 통해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열린 육아 공간이다.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에는 도서와 장난감 등 80여 종 이상이 비치돼 있으며,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돌봄 장소로 활용된다.

이번 개소를 통해 군산은 나운동 늘푸른도서관 내 위치한 1호점과 오션클래스 도서관 내 2호점, 총 2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된다.



문의 여성가족과 454-3253

## 용담댐 물이 방축도까지

옥도면 방축도에도 용담댐에서 공급되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선유도에서 방축도까지 해저관로 3.4Km를 포함한 상수관로 6.8Km를 매설하는 공사가 지난 2019년부터 진행중으로 현재 3월 완공을 목표로 가압장, 배수지 등 수도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그 동안 지하수와 해수 담수화에 의지해왔던 도서 지역의 식수난이 해결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수도과 454-5392

## 바다뷰 동백대교,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대감 상승!

### 올해 야간 조명설비 보강 및 개선사업 추진

동백대교 조명설비 보강 및 개선사업 추진으로 군산과 서천의 야간 관광 인프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백대교는 연장 3.185km 폭 20m로 지난 2018년에 개통했으며, 24시간 모니터링 폐쇄회로(CCTV 8대), 안개등, 습윤 염수 제설장비 등 자동차 안전시설과 아치고 구간(160M)에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됐다. 올해 나머지 구간에도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동백대교가 두 지역 간의 대표 브랜드라는 상징성 및 상생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건설과 454-3622





## 군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제243회, 2022년 주요업무보고 및 9건의 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2022년도 들어 첫 회의인 제243회 임시회를 열고 민생 챙기기를 위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19건(조례 7, 규칙 9, 훈령 2, 예규 1)을 정비하여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시의회는 2022년 한해를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인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비롯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충원,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의정혁신추진을 통해 투명하고 소통하는 의회와 역량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시민 모두 어려운 위기와 고난에 처해 있다며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대안 모색은 물론 원칙과

기반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제243회 임시회에 심의 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 전북시·군의회 의견청취 간담회

전북 시군의장협의회가 7일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북 시·군의회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문제 협의,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제반사항 논의 등 시·군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시행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일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반드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 시·군이 지역을 뛰어넘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 작은 정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되길...

-군산시의회,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군산시의회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지사회장 이선홍)에게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해 달라며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적십자 회비는 재해 및 이재민 구호·취약계층 생활지원·혈액 사업 등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김영일 부의장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이 어려운 곳에 항상 적십자사가 손을 내밀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등불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극난대망(克難大望)'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꿈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군산시의회 2022년 시무식-



군산시의회는 지난 3일 군경묘지 신년 참배를 시작으로 임인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소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극난대망(克難大望)’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 큰 꿈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새해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도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3명의 시의원들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될 것이며 군산의 더 큰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고 덧붙였다.

김영일 부의장은 “지난 한해 23명 의원들의 싱크탱크가 되어 준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새롭게 꽃피우게 되었다.”며 “새해에도 의원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올해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시의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시의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함께 사는 세상

# 우리동네 소식



## 조촌동

군산라이온스클럽, 조촌동 저소득층에 식료품 후원

군산라이온스클럽은 새해를 맞이하여 조촌동 저소득층에게 달걀, 떡국떡 1kg, 두부, 주스 등 (189만원 상당) 각 100개씩 식료품을 후원했다. 군산라이온스클럽은 작은 나눔, 작은 실천, 큰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58년째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후원, 집수리, 장학금 전달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해신동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따뜻한 입학선물 전달

해신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관내 취학아동 3명에게 학교생활의 첫 발을 댈 것을 축하하고 지역 어른들의 사랑이 담긴 뜻깊은 초등학교 입학선물을 전달했다.



## 개정동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 나눔

개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20세대에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 20채(200만원 상당)를 나누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개정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한 착한가게 7개소 (유신기업사, 개정화원, 길성캐버스, 가스온, 대우종합건축자재, 르노삼성자동차 군산정비센터, 차이홍)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 월명동

통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 성금 기탁

월명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100만원씩을 기탁했다. 기탁 받은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월명동 저소득주민을 위한 맞춤형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나운3동

나운3동 착한이웃을 소개합니다

나운3동은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을 기탁한 후원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나운3동 주민센터 외관에 후원자 명단 현황판을 제작·게시하였다. 특히 이번 현황판은 2021년 작년 한 해 기부에 참여 해주신 착한가게(착한어린이집) 및 일시기부자 70개소의 명단이 게시되었다.

감사합니다



## 나운1동

익명 기부천사의 따뜻한 나눔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중년의 여성이 독거노인과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달라며 떡국용 떡 40kg를 기부했다. 이날 기탁된 성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3가구에 소중히 전달됐다.



## 나포면

나포길벗공동체, 독거노인 생필품 기탁

나포면 나포길벗공동체가 지역내 거주 중인 독거노인 세대에 8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품은 나포길벗공동체 시설 생활인과 직원들이 자체 진행한 바자회 "길벗장터"에서 마련된 수익금으로 구입했다. 나포길벗공동체는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 중인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로 현재 3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 옥도면

이웃돕기 2,500만원 기탁

신동영산업(해운)은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500만원을 기탁했다. (주)신동영산업(해운)은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운송사업과 선박임대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선수범하는 기업인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문화 확산을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받은 성금 2,500만원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옥도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추억의 명소로 거듭나는 군산시를 꿈꾸며...

리포터 유수경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임인년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는 호랑이 중에서 강력한 리더십, 독립성, 도전 정신, 강인함, 열정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2022년에는 강한 호랑이처럼 군산시에도 기백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해 첫날 아이들과 작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영화 '오징어게임'에서 나온 달고나를 만들어 보았다. 아이들도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달고나를 성공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내 어린시절이 떠올랐다. 골목길에서 쪼그려 앉아 친구들과 달고나를 만들고 모양틀대로 부수지 않고 모양을 뽑아내면 서로 자랑하며 좋아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 이처럼 군산을 떠올려보면 역사와 추억이 깃들어 있고 근대역사의 기록과 함께 가슴 아픈 역사도 품고 있는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한 곳인 것 같다.

군산시의 아름다운 곳곳이 오징어게임의 추억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인 초원사진관과 같은 새로운 명소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 세시풍속 <선달그믐날>

리포터 오정희

우리 조상들은 선달그믐날이 되면 집안 곳곳에 불을 밝히고 가족 모두 새벽닭이 울 때까지 애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긴 밤을 지새워야 하기에 화롯가에 둘러앉아 옛날이야기를 하거나 윷놀이를 하고 망년주를 마시면서 졸음을 쫓으려 애썼다고 합니다.

또한, 선달그믐날 저녁을 일찍 먹으면 농사일을 일찍 끝낼 수가 있다고 하여 서둘러 먹었으며 부스럼이 없어진다고 하여 무를 먹기도 했습니다.

선달그믐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든 아이들에게 흰 밀가루나 쌀가루를 개어서 눈썹에 발라두었다가 이튿날 아침 깨어났을 때 눈썹이 하얗게 세었다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시 풍속은 중국 송나라 때 시작되어 고려 때 매우 성하던 것이 조선조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선달그믐날에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한해의 마지막에 집안 곳곳 불을 밝혀 새해에 복을 받으려는 풍속으로 잠을 잘 일이 아니라 묵은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설게하라는 숨겨진 조상들의 교훈이 깃들인 풍속이라고 합니다.

## 탑과 옥구들노래

리포터 문정현

대야면 건강산 중턱 고려시대 만들어진 3층 석탑이 1,500여년 동안 옥구들판을 바라보고 서 있다. 탑이 있는 마을에 사는 탑동 사람들 들판 너머만 경강 상류를 탑천(塔川), 마을 앞 신작로는 탑천로(塔川路)라 불렀다. 탑천(塔川)과 탑천로(塔川路) 사이 초록, 노랑, 하양, 황토색으로 옷 갈아입는 논밭미에 마다 옥구들노래가 울려 퍼졌다. 예부터 내려오던 들노래는 일제강점기에 더욱 활발하게 불리었다. 수탈의 아픔을 이겨내려는 공동체의 응축된 소망이었다. 그 들노래를 들었을 탑동 3층 석탑도 같이 울며 여원했을 것이다.

대야 탑동 3층 석탑과 1974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공부장관상까지 받았던 옥구들노래는 보살피고 배워 미래세대에게 고이 전해야 하는 선조들이 물려준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 무라벨 물병을 아시나요?

청소년 리포터 이지현

여러분, 무라벨 물병을 아십니까? 요즘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로 새롭게 떠오른 방안이 바로 '무라벨 물병'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이나 음료수를 사면 상품의 이름이나 상세정보가 적혀있는 라벨이 붙어있는데 이 라벨이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음료수병의 라벨지를 없애고 날병 용기 표면이나 묽음 포장재에 상표와 정보를 적어 라벨 없는 물병, 즉 '무라벨 물병'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라벨을 없앤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는 환경오염도 줄이고 라벨을 떼는 번거로움도 없는 무라벨 물을 구매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의 지구를 위해 모두 실천해 봅시다.



## 즐거움 시작

어린이 리포터 김규리



우리는 졸업을 앞두고 있다. 초등학교 생활 중 6학년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코로나19로 현장체험 학습도, 운동회도, 손꼽아 기다리던 수학여행도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학교에서 학사복을 입고 마스크가 없던 사진을 찍는데 너무 어색했다.

다. 어느새 마스크가 우리 신체 일부가 된듯하다. 이제 곧 6학년 졸업식이 다가오지만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반 친구들과끼리 졸업식을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많은 제약 속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만 친구들과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졸업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한해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다양한 직업체험들과 처음해 보는 화상수업을 하며 웃었던 생각이 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즐거움은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 중학교에 가서는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는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우리들의 즐거움은 계속될 것이다.



## '월명산'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니?

어린이 리포터 김동찬



우리집 근처에 내가 좋아하는 산이 있다. 매일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산책하시고, 주말에는 내가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산책을 하는 월명산이 있다. 매번 월명산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산이 있다는게 너무 좋다.

군산시의 상징인 월명산(月明山)을 비롯하여 장계산·설림산·점방산·석치산 등으로 이어져 있고, 산책로를 따라 공원으로 올라가면 군산 시가지와 금강하굿둑·서해·외항·동백대교·장항제련소 등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공원 정상에는 전망대와 바다조각공원, 수시탑, 삼일운동기념비, 개항35주년 기념탑, 생각하는 시민상, 채만식 문인비도 있다.

월명호수에는 초여름이면 연꽃이 피고, 아주 큰 물고기들이 살고 있으며 때때로 거북이와 오리떼를 볼 수 있어, 도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어린이숲 놀이터에는 터널놀이, 통나무 건너기, 모래놀이를 할 수 있고, 체육공원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네도 있어 어른들과 함께 운동도 하며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월명산에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는 편백나무 숲이 많아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소중한 월명산을 우리가 함께 가꾸어서 군산의 대표 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표산이 되길 바라본다.



### 202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안내

6월,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시면 1년간 자동차세의 9.15%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신청 : 스마트위택스(앱)  
 방문 또는 전화신청

**납부방법** 가상계좌, 전화ARS(카드납부전용) ☎1544-1414,  
 인터넷 전자납부(위택스), 금융기관 납부

**참고사항** · 2021년 연납하신분은 별도신청없이 연납고지서 발송  
 · 연납신청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종전대로(6월,12월)고지서 발송  
 · 연납 후 이전·폐차하는 경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환급됩니다.



문의 세무과 454-2400

### 다문화 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

도입업종 김양식장  
 신청기간 2022. 01. 11 ~ 03. 11(60일간)  
 신청방법 우편 및 팩스, 직접접수  
 근로기간 하반기 3개월 또는 5개월  
 도입대상 다문화 가족 (중국)



- (연령기준)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일 기준)
- (혼인기준)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 유지 또는 사별로 가정을 유지하는 자
- (신청인원) 다문화 가족 당 8명 이내의 인원만 신청가능
- (신청불가자) 무단이탈가족, 이혼가정

항공료 입국자 개인부담  
 자가격리비 어가(50%) + 본인(50%), 입국자 식비 (1일, 3만원 소요)  
 \* 코로나19 검사 필수

임금지급 월급 2,297,330원(산재보험 의무가입) \* 숙식비 : 급여액 10%미만  
 근무시간 (어업) 209시간 일괄도급식 계약

문의 수산진흥과 454-2892

### 농가기술 시범농가 신청접수

**사업규모** 5개분야 24개사업  
 (식품가공, 지도운영, 경영교육, 작물환경, 소득작목)  
**신청기간** 2022.1.6.(목) ~ 2.4(금)/30일간  
**신청장소** 읍,면,동 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 이메일신청 후 분야별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청확인  
**신청절차** 읍면동,온라인신청(상담소경유) - 현지조사(상담소경유) - 대상농가선  
 정및 통보(농업산학협동심의회) - 시행사업추진(시범요인투입)



문의 농촌지원과 454-5222

### [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지원대상 중대본, 전라북도, 군산시의 행정명령 이행시설로서 행정명령 기간 내  
 군산시에 소재하는 시설(영업,사업장)

신청지급기간 2022. 1. 17.(월) ~ 2. 28.(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군산시청 홈페이지)  
 지원금액 개소당 800천원 \* 계좌입금



지원대상 행정명령 기간 2020. 5. 1. ~ 2022. 1. 16.  
 \*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며, 휴업 중인 경우 '20. 5. 1 이후 휴업중인 자  
 지급횟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지급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위임장 필요)

공통서류(필수) ①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③ 관련법에 의한 행정청 인·허가증 (예시 - 영업신고증 등)

시설종류	담당부서	연락처
키즈카페	관광진흥과	454-3360
숙박시설(농어촌)	농업축산과	454-5890
숙박시설(관광)	관광진흥과	454-3300
숙박시설(공중위생), PC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행정과	454-3410
영화관·공연장,종교시설	문화예술과	454-3270
실내·외 체육시설, 콜라텍·무도장	체육진흥과	454-3290
유흥시설(5종), 음식점(식당·카페)	위생행정과	454-3420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454-3250
장례식장	경로장애인과	454-7950
마사지·안마소	보건행정과	460-3290
학원·교습소·독서실	교육지원과	454-2580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과	454-2690
자유업종(마사지)	소상공인지원과	454-2680

### 2022년 전라북도(서울,전주)장학숙 신규 입학생 선발

**선발인원** (군산시배정인원)  
 서울장학숙 13명 (남7명, 여6명), 전주장학숙 17명 (남 5명, 여 12명)  
**접수기간** 2022. 1. 5(수) ~ 2. 5(토)18:00까지  
 (방문접수는 1.26(수)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전라북도 서울·전주 장학숙 홈페이지  
 · 방문접수 :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전라북도인재 평생교육진흥원, 전라북도 장학숙  
**심사기준** 성적 50점, 생활정도 50점 적용(선발위원회 심의 확정)  
**구비서류** 홈페이지 참고  
**선발자 발표** 2022. 2. 15.(화) 17:00 예정

문의 교육지원과 454-2582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활동비 등 지원

구분	방역물품비 지원금	방역지원금	21년 3분기 손실보상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원대상	방역패스 의무 적용 17개 업종 ※ 우리시 약 7,240개소	영업시간 제한업종 (2021. 12. 18. ~) ※ 우리시 약 7,000개소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집합금지 업종, 영업시간제한 업종 (2021. 7. 7.~ 9.30) ※ 우리시 6,147개소	집합금지 업종, 영업시간제한 업종 시설인원제한 업종 (2021. 10. 1.~)
지원규모	최대 10만원 방역물품 구입금액(증빙서류 첨부)	100만원 정액	하한액 10만원 ~ 상한액 1억원 손실산정액의 80%	하한액 50만원 ~ 상한액 1억원 500만원 선지급 (정산후 1%상환, 2년거치 3년상환)
신청기간	2022. 1. 17.(월) ~ 2. 25.(금)	영업제한업종 2021. 12. 27.(월) ~ 일반업종 2022. 1. 17.(월) ~	2021. 10. 27.(수)~	선지급 신청 2022.1.19.(수) ~ 4분기 신청 2022. 2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방문신청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454-2682



## 공연 및 전시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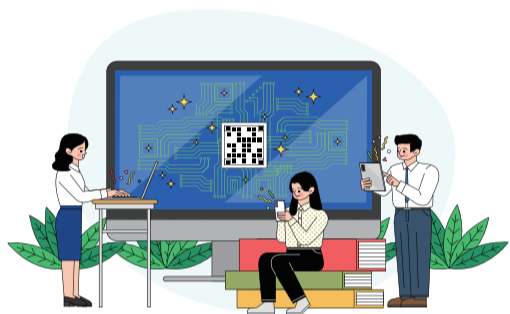
### 근대역사박물관 및 금강권 전시장 주요전시일정

기간	전시명	장소	내용
1.3.~5.31.	'나의 기록, 군산의 역사' 기증자료展	박물관 기획전시실	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시
21.11.9.~22.2.13.	故이용휘 화백 특별전 <숲을 노래하다>	근대미술관	故이용휘 화백 기증작품
1.11.~2.6.	이가윤 개인전 <with 동그라미>	장미갤러리(2층)	서양화 20점
2.8.~3.6.	박소연 개인전 <보통의 전시>	장미갤러리(2층)	서양화 20여점
21.12.17.~22.3.31.	남겨진 기록 :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3.1운동100주년기념관	사진 70여점

※전시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관람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물관관리과 454-7870

## 2022 시민정보화교육 신청안내



**교육대상** 군산시민 누구나

**교육기간** 2022. 1. 17. ~ 12. 16.

\* 접수기간 : 2022. 1. 10.부터 접수일정에 따라 선착순 접수

**교육과정** 컴퓨터활용, 인터넷활용, 스마트폰입문 스마트폰활용, 문서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지편집, 영상만들기 (총9개과정)

**교육장별 모집인원** 시청 전산교육장(8층) 오전반 34명

시립도서관교육장(수송동) 오전반30명,오후반30명

온라인교육 야간반 30명

**유의사항** 한번에 한과정만 신청이 가능하며 과정별 2년 이내 2회까지 수강가능  
수강신청은 일정표에 따라 과정별 접수일에만 인터넷 접수 가능

\* 교육장 또는 정보통신과에서 지원가능

\* 15명 미만 접수시 폐강

**접수방법** 홈페이지 (www.gunsan.go.kr/edu)신청

문의 정보통신과 454-2150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개시 안내

**시행일** 2021년 12월21일부터

**주요 변경내용**

-표지색상변경(녹색→남색),사증면수 최대 58면으로 확대

-우리 문화유산 활용한 디자인, 주민등록번호 제외, 최신보안요소 적용

**기타사항**

-2021.12.20. 18:00까지 접수되는 것은 기존(녹색) 여권으로 발급

-현재 보유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불편없이 사용가능



문의 열린민원과 454-4070



## 군산 청년을 위한 잘 차려진 밥상

군산 청년들아, 요즘 뭐하니?

#소통 #마음상담 #정책 #취업 #창업 #일자리 #청년공간 #당장검색



<http://gsyouth.or.kr>

문의 일자리정책과 454-4382

<눈에 담아 마음을 쓰다>

## 『군산관광 포토투어 에세이』 최우수작

고기잡는 아버지, 생선장사 엄마, 그물을 꿰매시던 외할아버지, 요리의 달인 외할머니의 냄새가 오늘따라 달달 따라다녔다. 사람의 일이란 참으로 오묘하다. 늦 중년인 내가 딸과 함께 어린시절 나의 동네를 찾다니. 골목길 끝을 바라보니 추운 겨울 손발 동동거리며 공동화장실 판자문에 기대어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중얼거리는 내 소리에 딸이 물었다. '오늘은 엄마 고등학교 쪽으로 여행 가볼까. 동쪽 바닷가 끝자락 경포천에서 월명산 서쪽에 있는 학교까지, 한 시간이 넘는 통학거리가 누구에게나 일상이었던 시절. 빠른 속도로만 살아본 지금 세대는 꿈도 꾸지 못할 먼거리였다. 어느새 여고생의 내가 되살아나 추억의 통학길을 걸었다.

경포천, 중동골목길, 짬보선창, 근대역사박물관을 거쳐 영화동 신흥동으로 들어가니 일제강점기를 엿볼 수 있는 시공간이 나왔다. 천혜의 자연 월명산 품속에 앉아있는 학교정원에서 사십여 년 전의 내 모습을 딸은 듣고 그렸다. 학교 건너 말랭이마을(순 우리말로 산봉우리)의 표지판을 보며 마을의 위를 보았다. 부산감천마을처럼 벽화 몇 점이 보였다.

달빛 산 아래 이리저리 어깨를 치며 나란히 앉아있는 집들. 근대부터 이어진 수많은 시간들, 그 속에 살고있는 사람들. 마을사업으로 말랭이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품을 내어준다. '저 품 한자락에 작은 동네책방하나 펼치면 어떨까?' 딸은 무조건 '오케이'.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가 생각났다.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중략)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다 곱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

\* 수상작은 <http://www.gunsanphot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